

“봄동의 생명력 통해 희망 전하고 싶어요”

15년간 봄동 그린 선현옥 작가

“한국인 삶 상징... 텃밭서 키우고 그려”
장애인지원재단예술협회 사무국장 맡아
“그림으로 장애인들에 용기 주고 싶어”
6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서 개인전



“한겨울 눈 속에서도 파릇파릇하게 피어있는 봄동이 꼭 한국사람들 같았어요.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꽃꽂이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한국인 삶이 보이더라고요. 봄동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선현옥(51) 작가에게 ‘봄동’은 자신이자 한국사람을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30년 예술인생 중 절반 가까이 봄동과 함께 했다. 그가 오는 6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여는 개인전 ‘봄동을 思惟(사유)하다’는 다양한 봄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전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85학번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암울한 시기였죠. 학교 안에 항상 감시 눈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러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남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생에 집중했죠. 그 시기에 봤던 봄동이 머리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로 활동하던 초기에는 봄동이 작품 주요 소재는 아니었다. 풍경을 주로 그리며 봄동은 작품 속 일부였다.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계기는 지난 2000년. 무등예술관(현 무등갤러리 전신)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 때다.
“첫 첫 개인전이 늦은 편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개인전을 자주 여는 풍토가 아니었거든요. 작가들이 작업을 총망라해 보여주고 스스로도 되돌아보는 계기였어요. 그때 봄동을 희망 상징물로 꼽고 작품 인생 소재로 삼자고 생각했죠.”
물론 그리기는 쉽지 않았다. 반듯반듯한 여느 잎과

리와는 달리 주름이 많아 세밀한 묘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첨단지구에 마련한 작업실 인근 텃밭에서 봄동을 직접 키워 그리기도 했다.
그가 그린 봄동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시에서 선보인 ‘心+力’ 시리즈는 캔버스에 걸터앉은 사람이 봄동을 실은 배에 밧줄을 연결해 끌고 있다. 사람은 지점으로 작가가 직접 만들어 붙였다. 마음과 힘이 만나면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세월호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진리’ 시리즈는 경전과 봄동이 함께 등장한다. 겨울을 이겨낸 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봄동을 통해 ‘베훤이 곧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도마에 그린 봄동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지난해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배경이 어두운 작품도 선보였지만 올해는 분홍, 주황 등 밝은 색 배경이 눈에 띈다. 지난 2014년 장애인비장애인국제한국문화예술협회 사무국장을 맡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집중했다. 선씨는 “우연히 장애인 작가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보여 너무 안쓰러웠다”며 “직접적인 도움과 함께 작품으로도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민적이면서 맛도 일품인 봄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요. 봄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표현기법을 개발해 봄동이 가진 숨은 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心+力’ 시리즈

광주·전남 서울 공동갤러리 인사동 인사마루 건물에 ‘등지’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문화재단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공동 운영하는 ‘G&J 광주·전남 갤러리’ 장소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인사마루 건물로 확정됐다.
인사동 중앙에 위치한 인사마루는 총 5층 문화복합건물로 이중 1~3층(총 360㎡ 면적)을 임대해 갤러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G&J광주·전남 갤러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인력 등을 똑같이 지원해 운영한다는 큰 틀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 작가들이 한번씩 번갈아가며 전시를 하고 각

기관이 1년에 2~3차례 기획전을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문화재단은 기획전을 활용해 경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등을 따져 광주시립미술관이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GMA’보다는 대관료(1주일 50만원)를 소폭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G&J 광주·전남 갤러리’는 지난해부터 광주·전남도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8년부터 ‘갤러리 LIGHT’(인사동), 2012년 ‘갤러리 GMA’(사간동) 등 서울 갤러리를 운영해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진호(왼쪽) 광주시립미술관장과 오영상 전남문화재단장 사무처장이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 여수시립국악단 초청 공연

4일 남도소리 올림피아드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여수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이경섭)을 토요공연 무대에 초청했다. 4일 오후 3시 남도소리 올림피아드 공연장.
‘동백, 바람에 날리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민의 삶과 애환 그리고 삼도수군의 승리의 함성을 겨울에 피어나는 동백꽃의 강인한 기개에 빗대어 연주한다.
‘해녀춤, 수반’은 여수 바다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는 무대로, 해녀들의 물질에 맞서는 가득차고, 해염쳐 놀던 아이들은

바다와 벗이 된다는 내용의 관현악곡을 춤으로 표현해 연출했다.
또 흥겨운 ‘겨문도 뱃노래’, 이순신과 전라좌수영 민들의 함성은 살아 있음을 노래하는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아가리’, ‘전라좌수군가’ 등 관현악과 무용, 합창이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제2부에서는 여수시립국악단이 2011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문화 브랜드 작품 ‘Say 굿’을 공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단체·대학생 7000원, 초·중고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5000원.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G-POP 페스티벌 참가자 7월 15일까지 모집

제 4회 G-POP페스티벌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가요(트로트, 발라드, 댄스곡, 재즈, 락 등), 댄스, 그룹사운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과 준결선은 오는 7월30일 광주 예총 방송소리 공연장에서 열리며 본선은 오는 9월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 특별무대에서 개최된다.

남녀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외국인 포함)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 MR-CD,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원서 마감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입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 등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회비 연인정액 증서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GPOP뮤지션을 꿈꾸는 아이들(cafe.daum.net/GJG-POP)’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352-10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공연 공연작품 공모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전통국악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토요상설공연 무대에 올릴 12개 공연작품을 공모한다.
장르는 전통국악 기반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는 물론 클래식, 춤 등을 포함한 퓨전 국악공연 등이며, 전통문화관 실내공연장 서석당 혹은 야외에 위치한 너털마당에서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공연작품을 모집한다

하반기 공연은 7월 셋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작품’ 12회, ‘초청 특별기획공연’ 11회 등 23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내에서 국악관련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상설프로그램이다. www.gjcf.or.kr.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6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익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화요청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목포시 · 나주시